26일 Market Index
코스피 2468.65 (+40.08)
코스닥 738.94 (+6.59)
금리(국고채 3년) 3.273 (-0.012)
환율(원·달러) 1230.70 (-1.00)

metro 경제

[경제종합] 글로벌 악재에도 현대차 매출액 142.5조 '신기록' 06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일손 부족·CEO 고령화… 韓 제조 中企 무너진다

위기의 중소기업

생산가능·경제활동인구 급감
뿌리산업 인력난·고령화 심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숙제
3高 따른 경기침체로 생존 위협

산업을 떠받쳐야 할 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내국인이 외면하는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창업세대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경직된 기업승계 제도 때문에 후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는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고사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나마 대기업 협력사라면 모를까 중소기업 단독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은 언감생심이다. 개별 국가가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무역장벽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는 갈길 바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몸집이 큰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상생' 이슈도 여전한 숙제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초변화 대전환의 시대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인과 직원들의 협력, 기업간 협력, 기업과 정부의 협력, 국가간 협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기업은 기능 조직과 미션·프로젝트 조직이 씨줄과 날줄처럼 결합한 협력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전략, 조직, 인사 등을 전면 혁신해야하며 국가도 초변화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전략, 정부 조직,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늙고 일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나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한 15~64세 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25년에는 3544만6000명으로, 2030년엔 다시 3343만7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320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25년에 291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엔 2875만8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도, 제품을 살 사람도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업종별 취업자도 희비가 엇갈리며 10년 사이 서비스업은 113만명 늘겠지만 제조업은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가 눈에 띌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 외에 농림어업, 건설, 전기가스 등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 경영자도 늙어가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드물고 99%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하얗게 변한 서울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63아트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눈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민간금융회사' 우리금융 차기회장에 내부출신 유력

오늘 임추위서 숏리스트 선정
이원덕·박화재·임종룡 예상
모피아 반대로 내부출신 무게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각 사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출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 반대 기류와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이룬 민간금융회사란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2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1차 후보군(롱리스트 7명) 가운데 2~3명을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2차 후보군에는 내부 출신은 물론 외부출신이 포함될 전망이다.

내부에선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일하다.

임추위는 평판 조회 결과를 반영해 2차 후보군을 확정하고 다음 달 면접과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단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엔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의 경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게감을 지닌 세 사람으로 압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내부 대 외부의 대결이 예상된다. 금융위원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외부출신과 우리금융 사정에 밝은 내부출신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우리금융노조는 모피아 반대를 주장한다. 더이상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노조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조직 상황을 잘 알고 영업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출신 인사로 내정해 관치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승계를 이뤄내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지난해 韓 경제 2.6% 성장… 2년만에 최저

경기둔화에 수출 증가세 둔화
에너지값 급등에 수입은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0.7%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이후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6%)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5%, -0.7%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수출은 2.9% 상승해 전년(10.8%)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6839억5000만달러로 전년(64444억달러) 대비 6.1% 늘었다. 코로나 진정세 이후 보복소비 등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1~9월까지는 월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갔지만, 10월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3.5% 늘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입액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4% 증가해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반등했던 지난 2010년(4.4%)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전반적으로 살아난 영향이 컸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강제징용 배상안에 '헌법위반·굴종외교' 비판 나와
▲ 이재명, 정읍서 검찰수사 관련 "사필귀정 믿어" /사진 뉴시스

▲ 유엔사 "北 무인기 침공, 정전협정 위반"
▲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남은 변수는 '유승민'

▲ 中해킹그룹, 우리말학회 등 국내 학술기관 해킹
▲ 박홍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책임 물을 것" /사진 뉴시스